

# 내 주인공에서 나온 거니까 내 주인공밖에 고칠 수 없다!

29면에서 계속

으로 하지 않는다면 공부할 사람 없다 이 소립니다. 양면을 다 들고 다 놔라. 선과 악을 다 맡겨 놔라 이겁니다. 겁을 통해서 그 종 문서는 불살라야 하니까.

내가 항상 그런 말 하는데 작년 콩씨를 올 봄에 심었는데 콩나무로 화했으니 콩씨는 없어졌죠? 콩나무가 돼 버렸으니까. 내가 콩나무란 말입니다. 각자. 그럼 콩나무의 콩씨는 열렸겠죠. 또, 그런데 작년 콩씨를 찾고 있다 이 소립니다. 얼마나 더디냐 이 소리예요. 과거의 겁을 통해서 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몽땅 짊어지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그건 물질로 돼 있는 게 아니고체가 있는 게 아니어서 내 마음에, 컴퓨터에 들어가 있듯이 의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겹겹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모든 거를 나오는 대로 거기다 놓지 않으면 그 습을 땔 수가 없고 그 습을 녹일 수가 없어요. 훌연히 자기 참자기의 그 생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려면, 그것을 개발하려면 뇌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놔야 돼요. 자기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도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내 앉은 자리가 전체, 우주 전체 그 자리가 도량이나라. 저기가 앉으면 저기에 부처가 있는 거고...' 아, 여복하면 변소에 가면 변소에 계시니까요. 그렇게 놓지 않으면 어떻게 그 미지수의 세계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하려면...

**질문** 요즘 아이들이 잦은 병치레를 하는 바람에 생활에 여유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아이 하나만 아파도 가족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근심이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스님, 아이들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 속에서, 이 지금 오장 육부 속에 생명들이 수십억 마리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그 의식 자체를 지배하는 거는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의식만 빠지면 송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생명들이 운행하는 데에 간이가 아프다 위장이 아프다 그럴 때 위장 공간에다가 직속 '야, 너희들이 아프게 한 거니까 너희가 낫게 해야지.' 한다면, 그대로만 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로 인해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들의 주인공도 돌이 아닌 까닭에 내 주인공만이 내 아이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믿고 거기다가 맡겨 보세요. 바깥으로 반드시 나오니까.

아픈 거나 가난한 거나 가정의 우환이나 또

는 인과응보로 인해서 오는 거나 유전성으로 오는 거나 영계성으로 오는 거나, 용광로에 현쇠들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쇠가 생선이 돼서 나가듯이, 모든 일체를 다 그렇게 해서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한다면 새로 생산돼서, 이름을 가지고 다시 나가는 것은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위대하든지 위대 안 하든지, 생활 속에서 어려운 사람이든 거지든 부자든 그거 아랑곳없습니다. 돈이 많은 적든 그것도 아랑곳없어요. 내가 일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똥 누면서도 자면서도 항상 내가 내 앞에 닦인 거를 내가 생각날 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앞드러지면 누가 일어납니까? 앞드러진 높은 누구고 일어나는 높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앞드러졌으면 자기가 일어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어요. 이열치열! 병이라는 건 몸만 아파서 병이 아니에

스위치를 올리면 방에 불이 들어오죠? 전력이 들어오는 그 과정은 모르지만 불 들어오는 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전력이 들어오는 과정은 보이지 않지만 불이 들어오는 과정은 봤다 이겁니다. 불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온다는 건 믿으시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자기한테도 영원한 자기의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행하는 그 마음도 선행하는 마음도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써 '거기에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하고 믿었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전력이 보이지 않게 들어오듯이, 내 마음의 범성신의 그 뜻이 돌아서 바로 나한테 딱 나타날 때 그 기쁨이란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조그마한 걸로부터 나를 실험해 보고, 내 몸으로 실험하고 내가 정으로 실험하고 내 사회로 실험하고 또 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이렇게 각자 찾으렵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배를 타려고 뱃사공한테 가면 뱃사공이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물건을 하나 사려고 공장에 갔다 한다면 공장 주인이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치과에 갔더니 정말 그 치과의 박사가 으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다 으뜸이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벽을 치면 붓장이 올라야지!'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모른다면 백문선이 헛문선이죠. 그러니 내가 부탁할 것은 어느 법당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모두 일불(一佛)의 한 생각으로써, 한마음으로써 부처님한테 지극하게, 내 한마음과 일체제물의 한마음을 다 한꺼번에 해서 일배를 올리면 천배 올린 것보다 수확이 좋다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처님한테 갔을 때 어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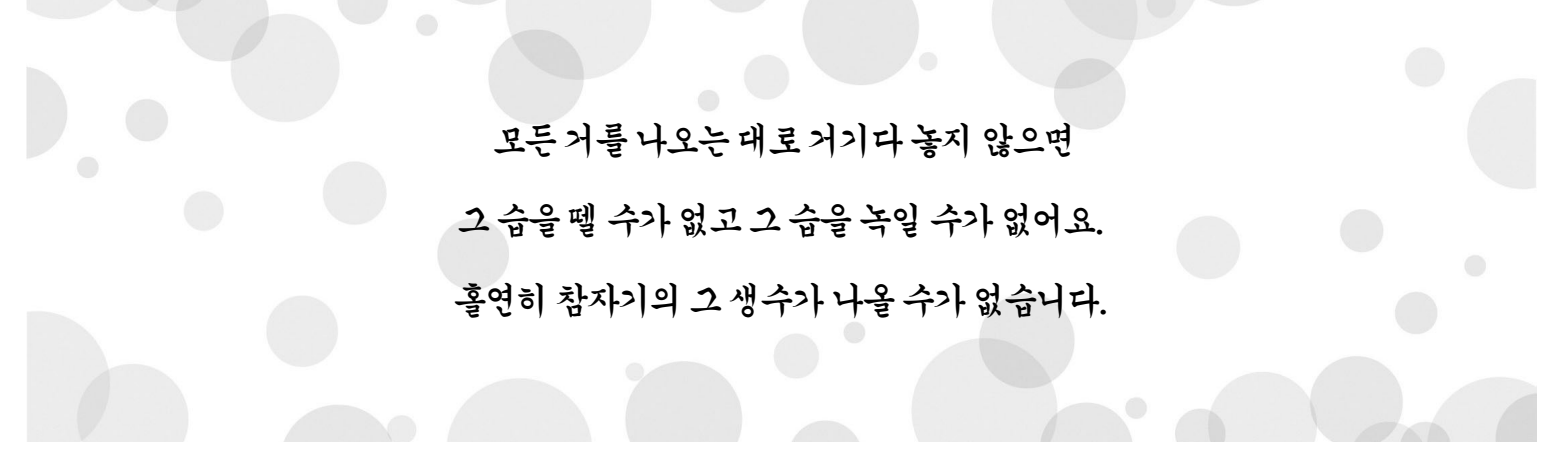
원짜리 사러 갔으면 오십 원짜리는 꼭 오십 원짜리를 줘야 합니다. 오십 원을 주면은 오십 원짜리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 그것은 돈을 스님한테 준 사이도 없고 부처님한테 갖다 놓은 사이도 없는 겁니다. 또 가져간 사이도 없죠. 부처님이 준 사이도 없고 스님네들이 준 사이도 없죠. 그래서 준 사이도 없고 가져간 사이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합니다. 이 뜻을 잘 알아서 행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멸심과 적멸심의 관계

**질문** 우리의 마음은 일순간도 쉬지 않고 चल나에 일어났다가 차나에 없어졌다 또 चल나에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그런 작용이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는 한생각 일어났다가 한생각 없어지는 그 생멸심이 곧 멸하면, 그것이 쉽게 말해 본래 마음이다. 즉 불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고요한 적멸심의 자리와 끊임없이 일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 생멸심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요.

**답변** 우리가 여기 걸어들 때 한 발 떴다 한 발 놓고, 한 발 떴다 한 발 놓고, 이게 생멸입니다. 이게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알리고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안 그렇습니까? 일어났다 또는 가라앉았다 이게, 마음이 이렇다는 것과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놓고 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이게 어떻게 돌이겠습니까?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놓고 하는 작용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들 다니지 못합니다. 안 그러니까?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성불이라는 말도 없을 거고 중생이라는 말도 없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한번 방편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버지 노릇 하다가 남편 노릇 하다가 또는 형님 노릇 하다가 자식 노릇 하다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방 일어났는데 금방 탄 걸로 돌아갔어요. 금방 탄 걸로 돌아가고 탄 걸로 돌아가고, 이렇게 일어났다 놓았다가 일어났다 놓았다 해도 그냥 여여하게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돌이 아닌 것입니다. 돌이 아닌 까닭에 그냥 '여보!' 하면은 '왜 그래?' 하고 일어나는 마음, 그 일어나는 마음은 चल나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악으로나 선으로나, 일어나는 마음을 잘 응용을 하면은 선이 되고 잘 응용하지 못하면 악이 됩니다. 싸움을 할래도 '여보!' 할 테고, 좋은 말을 할래도 '여보!' 할 겁니다. 그런 걸 대치를 해서 잘 응용한다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법인 것입니다.



요, 마음의 병도 병입니다.

또 정신박약아가 되는 것도 여기에서, 자기한테서 나온 거지, 인과응보로 나왔든 유전성으로 나온 거든 세균성으로 나온 거든, 또는 척추에서 나온 거든 두뇌에서 나온 거든 그건 아랑곳없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서 나온 거죠. 그런 거니까, 자기한테서 나온 거니까 자기한테다 맡기세요. 기제도 조립한 사람이 잘 고치듯.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나온 거니까 자기한테다가 맡겨라 이겁니다. 맡겨 놓고 '어, 거기서 나온 거니까, 내 주인공에서 나온 거니까 내 주인공밖에 고칠 수 없구나. 주인공, 너 알아서 해.' 하고선 맡겨 놓고 관해 본다. 이게 관한다 하는 건 지켜본다 이겁니다. 지켜보면 그때에, 바깥으로 어떠한 문제가 나올 때에 자기가 실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 주인공에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 전지불과 같다. 스위치를 올리면 이 방에도 들어오고 저 방에 들어오고, 전력이 가설이 다 돼 있으니까 내가 다니면서

떠난 나라로 실험하고, 이렇게 자기가 한번 던져 보고 자기가 실험하고 이렇게 해 보면 그게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밝아집니다. 자기 본래면목을 밝게 볼 수가 있다는 얘 겁니다.

전각마다 부처님이 계시는데

**질문** 저는 산을 좋아해서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산엘 갑니다. 그런데 산에 가면 절이 있어서 참배를 드리게 되는데, 대웅전에도 여러 부처님이 모셔져 있지만 전각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스님, 모든 부처님과 전각에 다 참배를 해야 하는지요? 웬지 빠뜨리게 되면 깨를 찌는 기분이라서 여쭙습니다.

**답변** 각 사찰에 이 모든 부처님을 모셔 놔든 신중당을 모셔 놔든, 하다못해 돌을 모셔 놔든 상관할 것 없어요. 모두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런 부처다 부처가 아니다 하는 대로 가는 거니까요.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만물만생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고 감사하지 않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낮은

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부처에도 놔야 하고 저 부처에도 놔야 하고, 요 부처에 놓지 않으면 자식이 어떻게 될까, 요 부처에 놓지 않으면 영감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또 재수가 좋지 않으면 어쩌나? 또 삼재가 들었으니 언짢으면 어쩌나? 이러한 까닭에 없는 살림에 몇 푼 가지고 가서 요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놓으려니 어떤 땐 모자라서 그냥 나오면 마음이 깨를 찌는 겁니다.

모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한 부처님 앞에 그냥 고스란히 놓고 지극하고 정성스럽게 모두 거기 계신 분들을 한마음으로 모시면서 지극하게 하시고요, 없으면 지극하게 나오시고요. 또 있으면은 있는 대로 그 절에 다 놓더라도 한마음으로써 놓으시고, 또 웬만하면 그 절의 주지스님을 찾아서 주지스님한테 "모두를 다 써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거기 갖다 놓는 거나 산 부처님한테 갖다 놓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러 번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백만 원짜리를 사러 갔다면 백만 원을 꼭 줘야 삽니다. 오십

## 과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아미타경 해설,

동봉 스님의 삶과 수행 이야기가 담긴 수필처럼 아름다운 경전 해설

부록 독송하기 쉬운 아미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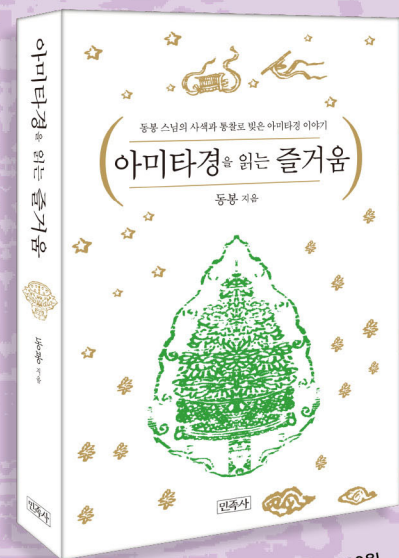
동봉 스님의 사색과 통찰로 빛은

##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지구환경이 병들면 생명도 아픕니다. 지구환경이 쾌적할 때 다른 생명은 우선 접어들고라도 인간의 삶도 건강합니다. 환경을 다루고 있는 아미타경은 그래서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염려하시는 경전입니다. 네가 아프기에 나도 아프다. 곧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본문 중에서

MBC 스페셜 '동봉, 킬리만자로에 가다'를 통해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을 구호하는 모습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친근한 동봉 스님의 57번째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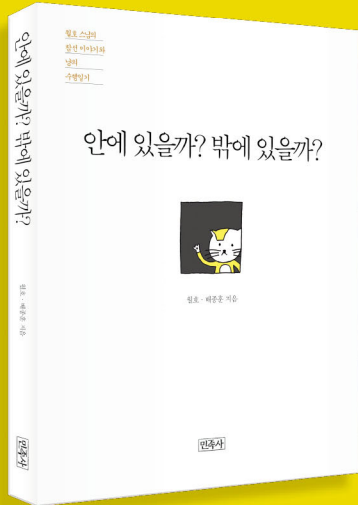
동봉 저음 | 신국판 양장 580쪽 | 23,000원

민중사 |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s.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월호 스님과 배중훈 작가의 환상적인 만남이 빛어낸

## 참선과 카툰의 만남

월호 스님의 참선 이야기와 남의 수행일기



월호 · 배중훈 저음 | 변형신국판 280쪽 | 116,500원

##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힐링을 넘어 근원적인 행복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명상이라 한다면, 그 관찰자를 관찰하는 것이 참선이다. (중략) 플라톤의 고향이는 천국에 원본이 있다. 현실의 고향이는 사본에 불과하다. 하지만 참선의 고향이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항상 귀중한 원본이다. 고향이를 살려낼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대에게 달려 있다."

-월호 스님

"남은 고향이를 넘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생명으로 늘 그 경계에서 갈등해야 하는 모습이 고양이 '남'에게 들어 있다. 남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웃고, 부끄러워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다."

-배중훈 작가

민중사 |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s.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